

2. 영화투자

한국의 영화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들의 영상사업 참여로 대규모 자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기업화되고 고도화되었다. 특히 IMF 이후 정부가 주도한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큰 역할을 했다. 정부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및 예산을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영화투자를 활성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벤처캐피털과 창업투자조합, 영상전문투자조합 등이 결성되었고 지난 20년 동안 영화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졌다.

순위	배급사	상영 편수	매출액 (억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만명)	관객 점유율(%)
1	씨제이이엔엠(주)	9	3,825	46.9	4,488	46.3
2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14	1,078	13.2	1,306	13.5
3	(주)쇼박스	7	979	12.0	1,158	11.9
4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4	836	10.3	1,026	10.6
5	(주)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3	301	3.7	350	3.6
-	기타	531	1,134	13.9	1,368	14.1
	합계	577	8,153	100.0	9,696	100.0

[표 1] 2019년 1~10월 한국영화 배급사별 관객 점유율(상영작 기준)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산업에서는 주류 상업영화에 투자 배급하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9년 현재 한국영화 산업은 CJ E&M, 롯데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등 네 개의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위 회사들은 투자와 배급을 일원화해 주도하고 있으며, 기업에 따라 제작을 담당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CJ E&M과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극장 계열사인 CJ CGV와 롯데시네마를 투자 및 배급 부문과 일원화하고 있는데 이를 전문 용어로 투자·제작·배급·상영의 ‘수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라고 한다.

이 외에 오리온 그룹의 계열사인 쇼박스는 한때 ‘메가박스’라는 극장 체인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었으나, 2007년 메가박스 극장 체인을 매각

했다.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워너브라더스는 지역화 정책 일환으로 2016년 워너브라더스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영화의 투자 배급에 참여해 왔다. 그밖에 중저예산 다양성 영화를 배급해왔던 리틀빅픽처스, 2018년 설립된 신생투자배급사 메리크리스마스·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등이 한국영화의 주요한 투자배급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 투자 부문의 또 다른 특징은 주류 상업영화의 경우 100%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대기업 중심의 영화 투자배급 구조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스튜디오들은 대개 영화 총제작비의 30% 정도를 투자하는 메인 투자자(main investor)의 지위를 갖는다. 메인 투자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스튜디오가 염두에 두는 것은 시나리오, 감독, 주연배우, 제작사 등이다. 따라서 하나의 영화 프로젝트가 스튜디오의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투자사는 제작비의 30% 가량 투자를 확정하고, 나머지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타 투자처에 제안한다. 이러한 투자처들은 영화산업에 투자해온 벤처캐피털과 영화전문투자조합으로는 한국벤처투자 등 콘텐츠산업 전문펀드를 비롯해 기업은행 등 금융권이나 KT 등 통신사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투자사들은 스튜디오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류 영화산업을 움직이고 있다. 이는 공공기금이나 공적 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 영화산업의 영화투자 모델과 차이점을 갖는다.

과거 영화산업이 고도화되기 이전에는 십시일반으로 투자금을 모아 영화 제작에 투자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저예산 독립영화를 제외하고는 개인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해외 투자의 경우 중국 최대 미디어그룹인 화이브라더스가 <미스터 고>(2013)에 투자했다. 이후 중국의 화이브라더스 본사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인수해 (주)화이브라더스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송 드라마와 영화 등에 투자하고 있다.

저예산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는 상업적 이윤 추구를 1차 목표로 하는 스튜디오나 투자전문회사의 투자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의 영화제작 지원이 중요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하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금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위원회가 지원

하는 공공기금, 또는 국내 주요 영화제들이 지원하는 기획개발 지원금, 제작지원금, 로케이션 인센티브(특정 지역에서 촬영에 사용한 금액의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 등이 있다. / ©한선희